

## 성인 남성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와 성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이 은 진<sup>†</sup>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본 연구는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의식차이를 비교 조사하여, 성매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운동과 추후연구를 계획하기 위한 탐색적 조사연구로 실시되었다. 경기지역 19세 이상 남성 1328명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의식과 태도, 성행위에 대한 허용도, 성 역할 평등의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성구매 경험에 따라 구분된 집단은 성구매 경험 집단이 향후 성구매 의향이 더 많고 부부나 애인관계의 성적만족도가 낮으며, 성지식 습득 경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비교 연구결과 성구매 경험자들이 성구매 무경험자들 보다 성매매에 대해 남성중심의 왜곡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행동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지며,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경험과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 성행위 허용도, 성역할 평등의식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 인정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구매 경험이 성매매, 성행동과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이거나 남성중심적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과 함께 연구의의와 제한점을 정리하였다.

주요어 : 성구매, 성매매, 성에 대한 허용도, 성 역할 평등의식, 여성주의적 관점.

<sup>†</sup> 교신저자 : 이은진,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 2동 신반포 3차 28-203  
Tel : 031-249-9198, E-mail : Lej1130@hotmail.com

우리 사회는 성매매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에서는 필요악이라는 시각을 적용하고 있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양가적인 시각은 성매매를 필요악이고 인류역사 시작부터 존재해 왔으므로 인정해야한다는 시각과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 규정하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정진경, 양계민, 2003). 필요악으로 보는 경우 공창제나 특정지역을 제한하여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며,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적·정서적 피해와 폭력에 대한 무방비 노출 상황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문제로 제시하고 있다(김현선, 2002).

지난해 시월 서울에서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기념하여,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 중 한사람인 제니스 레이몬드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성매매방지법이 보호와 처벌의 기능만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한겨레신문, 2008). 이렇게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실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법 시행과 함께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인식에서 ‘성매매는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법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며, 이는 대부분 철저하고 지속적인 법 집행이 잘 안되거나 성매매가 음성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관련되었다.

성매매는 성을 사고파는 제도화된 시장으로 역사 아래 존재해왔으며, 대개 대가가 따르고 성교나 다른 형태의 성적 행동과 유혹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거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2004). 성매매에 대해 기존에 사용되어온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들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법률용어로 사용되어온 윤락도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돈을 받고 몸을 버리는 행위’라는 뜻으로 성매매를 개별 여성의 타락으로 보게 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회구조나 인물들을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뿐 아니라 여성에게 이중적인 성도덕을 강조하고 억압하는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하에 개선해 나가고자, 제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매매는 개인 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 문제를 떠나 거대한 성산업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며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착취구조를 지닌다고 보았다(이성은, 2005). “2003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진 성매매의식 조사 연구의 결과(정진경, 양계민)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육과 더불어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평등 의식이 낮은 남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높고, 성구매 경험도 많으며, 앞으로 성구매를 할

의도도 높다고 나타난 결과들은, 성평등 의식이 성매매와 관련된 인식과 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 인식의 변화는 상응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법의 제정은 인식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 예견되었다.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규정과 성구매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법의 제정이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보고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김명환, 안혁근, 2006; 정진경, 양계민, 2003; Farley & Baral, 1998).

한국사회의 성매매는 집결지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룸살롱, 여관, 안마시술소, 이발소, 티켓다방, 보도방, 전화방, 비디오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유흥업소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곳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조국, 2003; 형사정책연구원, 2003).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의 유형 또한 집결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전통형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으로 이루어지는 ‘산업형 성매매’, 특정업체에 고용되거나 중간소개자 없이 이루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은경, 2002). 이러한 성매매 거래규모는 24조원으로 2002년에 국민총생산량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농림·어업의 비중인 4.4%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성매매의 일상화가 우리 사회 구조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 전체에 만연한 성매매의 일상화는 우리 사회가 가진 남성중심 규범

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규범들은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 주며, 청소년이 연루되는 성폭력 사건과 기혼자들의 혼외 성관계를 증가시키는 사회적인 병폐를 양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퇴폐와 향락산업의 급팽창 배경에 대해, 1970-80년대 개발독재하의 외화마련을 내세운 향락산업에 대한 이중적인 개발정책의 추진이 성매매 업소와 성산업의 급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 이후의 IMF 경제위기로 인한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개혁 조치들이 성산업이 급속하게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과 실직·가족 해체와 관련된 남성들의 불안 심리와 좌절감은 술 소비를 증가시키고 성매매 행위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김은경, 2002). 이와 관련하여, Giddens(1992)는 IMF 이후 상처받은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과 가부장적 권위’는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를 통해 보상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였다는 가설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경향들은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Kersten, 1996).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은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성구매자로서의 여성들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성매매로 인한 피해는 성폭력과도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지닌다. 여성의 2,30%가 아동이나 성인기에 성폭력피해의 과거력을 지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Russel & Bolen, 2000; 박경, 2006),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친밀한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 건전

하지 못한 또래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나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향도 높다고 하였다(DiLillo & Long, 1999). 성폭력 피해자들은 심리사회적인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심한 불안감, 우울감, 무력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수치심, 혼란, 분노, 배신, 적개심, 복수심과 같은 심리 정서적 문제와 외상 후 장애, 부적절한 성적 행동, 행동철수, 자살이나 자기-파괴적인 행동, 신체화 증상, 불법행위, 가출, 약물남용 등의 행동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재창, 1996;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성매매 여성의 폭력 피해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남성 성구매자의 폭력 행위들을 문제시해왔다. 많은 성매매 여성이 구매자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으며, 강간과 살해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조사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Coy, Horvath,, & Kelly, 2007).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연구한 우리나라의 연구(이주용, 김정규, 2006)에서 어린 시절의 성피해 경험이 성인기의 성적 기능이상 등의 어려움을 갖게 하거나 전화방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로가 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자신이 성피해로 인해 왜곡된 성의식을 수용하여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성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피해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 후 남성이나 성에 대해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가해남성이나 판결에 대한 분노로 인해 무력감과 함께 자살시도까지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권해수, 2007).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남녀에 대한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남성중심적 성의식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성구매행위를 하는 남성에 대한 연구들은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 조사의 일부 항목으로 포함되거나(새움터, 2002, 이은진, 이수정, 2008; 정진경, 양계민, 2003), 성구매 행위로 체포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김은경, 2006; Wortley, Fischer, & Webster, 2002). 김은경(2006)은 성구매사범을 대상으로 한 재범 방지 교육의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 우리나라 성구매사범의 특성에 대해 캐나다와 스웨덴의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자들의 특성 간의 중간지대 쯤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중년의 교육정도가 낮은 외국 출생자로 특징지어진 반면, 스웨덴은 기혼이거나 동거중이고 일반인들에 비해 경제적인 면이나 교육수준이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볼 때, 성구매사범의 특성은 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성매매 관련 연구들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이론적·실무적 기초자료들을 축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실태를 파악하고 범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연수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사회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성 고정관념이나 의식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왔다(민가영, 2006, 조국, 2003).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적 인식의 기저에 있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오랜 가부장제 역사와 연계되어 있어 단시일 내에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이러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의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전반의 의식이나 규범들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성평등에 대한 법률이나 국가 정책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 없이 실시될 때,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등의식의 확산이란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고 해체하는 과정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다(안상수, 김금미, 2008).

성별 고정관념과 함께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온 남성들의 성매매 일상성을 파악하기 위해, 남성들의 성의식 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인식의 전환이란 단시일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별 고정관념과 같이 편견이나 왜곡된 사고의 반영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성매매에 대한 의식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사고들의 내용이나 특성이 밝혀진다면, 남성들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교육이나 방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실시되어온 성매매에 대한 연구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처지를 알리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왔으며,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즈음하여 남성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들이 국민적 의식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 연구는 성매매 방지법 제정 후 시행 4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에 따라 성매매나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편견이나 통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성매매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추후 성매매에 대한 정책 마련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남성 전체의 성구매 경험과 추후 성구매 의향

을 조사하고, 다양한 성의식과 태도 관련 척도들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성구매 경험자들이 성구매 무경험자들과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여부나 향후 성구매 의향, 성지식 습득 경로들에서 차별화되는 집단 인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남성들은 성구매 경험 유무에 따라 성의식과 태도 척도들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차이들을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행동 허용도, 성역할평등의식 등으로 나누어 각 척도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구매경험자들이 성구매 무경험자들보다 성매매에 대해 남성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성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혼란된 태도를 가지며 성이나 성역할에 대한 평등 의식이 더 낮을 것이라 보았다.

## 방 법

### 조사대상

본 조사의 설문은 경기도내 수원, 안양, 시흥, 안산을 포함하는 지역의 19세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수거된 1358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30부를 제외한 1328부가 최종 분석대상이 되었다.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20대(50.1%)와 30대(23.0%)가 주류였으며, 40.2%가 수원거주자였다. 종교는 무교(47.0%), 기독교(27.2%), 불교(13.7%) 순이었으며, 대부분이 대졸(39.2%)이나 고졸(39.1%)이었다. 20대와 대졸의 비율이 다소 많은 것은 지역 내 대학생들의 설문이 371부 포함된 것이

표 1. 성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의 인구학적 변인

명(%)

구분	구매	비구매
연령대	10대	4(0.8)
	20대	164(30.8)
	30대	182(34.1)
	40대	143(26.8)
	50대	31(5.8)
	60대	6(1.1)
	기타	3(0.6)
계	533(100.0)	766(100.0)
X <sup>2</sup>	180.044***	
현거주지	수원시	204(39.5)
	안양시	35(6.8)
	시흥시	94(18.2)
	안산시	52(10.1)
	기타	131(25.4)
	계	516(100.0)
	X <sup>2</sup>	33.152***
종교	없음	273(52.1)
	기독교	107(20.8)
	불교	77(15.0)
	천주교	53(10.3)
	기타	4(0.8)
	계	514(100.0)
	X <sup>2</sup>	21.175**
학력	중학교졸업	23(4.6)
	고등학교 졸업	178(35.5)
	대학교졸업	252(50.3)
	대학원이상	24(4.8)
	기타	24(4.8)
	계	501(100.0)
	X <sup>2</sup>	65.037***

표 1. 성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의 인구학적 변인

명(%) (계속)

구분	구매	비구매
혼	미혼	221(43.5)
	결혼	249(49.0)
	혼	동거
	인	15(3.0)
	상	이혼
	태	4(0.8)
	계	6(0.8)
X <sup>2</sup>	508(100.0)	729(100.0)
X <sup>2</sup>	80.343***	
수입	150만원 미만	86(16.6)
	150~200만원	134(25.8)
	200~300만원	138(26.6)
	300~400만원	86(16.6)
	400~500만원	31(6.0)
	500~600만원	22(4.2)
	600만원 이상	22(4.2)
계	519(100.0)	721(100.0)
X <sup>2</sup>	18.488**	
본직	일용직 근로자	29(6.0)
	전문직/자유직	84(17.5)
	경영/관리직	23(4.8)
	행정/사무직	73(15.2)
	생산/기술직	73(15.2)
	서비스/판매직	60(12.5)
	직업	32(6.7)
X <sup>2</sup>	43(7.2)	
인직	자영업	17(2.8)
	사업	31(6.4)
	학생	47(9.8)
	기타	11(1.8)
	계	227(38.0)
	X <sup>2</sup>	39(6.5)
	481(100.0)	598(100.0)
X <sup>2</sup>	143.537***	

\*\*\* p &lt; .001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미혼이 전체의 57.5%를 차지하였으며, 월수입은 150만원부터 3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46.5%, 직업은 학생과 전문/자유직이 많았다.

유효한 응답자 1328명 중에서 성구매경험자가 41.2%인 538명이었다. 대학생이 조사대상자 전체의 27.9%를 차지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중에서 대학생을 제외한 경우 성구매 경험 비율은 47.6%로 다소 증가하였다. 성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의 인구학적 변인들 간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구매유경험자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2,30대(64.9%)가 많았고 성구매집단의 무종교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53.1: 42.6), 대졸이상의 비율도 비구매 집단에 비해 높았다(55.1: 39.0). 성구매 집단에서 전문직/자유직(17.5%), 행정/사무직(15.2%)과 생산/기술직(15.2%) 종사자의 성구매 비율이 비구매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비구매 집단에 많은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내의 차이는 경기지역에 국한된 편의적 표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미를 두어 해석할 수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 조사절차

2008년 7월부터 8월말까지 경기도내 지역의 공원과 회사, 관공서 등에서 설문조사원이 설문을 배포하고 직접 수거하거나 각 기관의 책임자를 통해 수거하였다. 대학생의 자료는 캠페인 기간에 교내 행사장에서 설문을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설문 참여가 많아져 대상자 중에 20대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되었다. 설문지 작성에는 15-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본 조사는 수원여성의전화의전화 부설 ‘어깨동무’의 ‘성매매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의 일부로 계획되고 실시되었다.

### 조사도구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매매 관련 질문, 2) 성매매와 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대한 척도들로 되어 있다.

####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과 성매매관련 지식이나 태도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인 연령, 학력, 거주지, 월수입, 혼인상태, 직업 등을 포함하여 부부나 애인관계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 유사성교의 불법성 인지여부, 향후 성구매 의향과 성지식 습득경로에 대한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 성에 대한 태도나 인식 영역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성매매 관련 법제정 이후에도 남아있는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3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 실시한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자료집에서 선정하였다. 문항의 예는 ‘성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거래 관계이다’, ‘성매매는 남자의 성욕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성매매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다.

#### 성행동에 대한 허용성.

1997년 한국성문화

연구소에서 실시한 ‘성인의 성의식 및 성선후도 조사연구’에 사용된 설문을 참조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흔전 성관계는 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는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도 괜찮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65였다.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성의식.**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김양희, 정경아, 1999)에 기초한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의 조사(2003)에서 활용한 문항들을 참조하여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문항들은 기존 설문문항들과 달리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남자의 외도는 곧 능력이다’,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등과 같이 본 설문 조사 대상자를 고려하여 재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였다.

#### 설문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성구매와 성교육에 대한 문항별 응답은 빈도의 기술통계를 사용하고 카이 검증( $\chi^2$ )을 통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성행동에 대한 허용성과 성평등의식 척도들의 문항별 응답은 빈도, 평균 등의 기술적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확인과 하위요인별 문항선정을 위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eigenvalue), 누적설명변량비율, 스크리 검사, 공통성(communality) 등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나온 각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정리하고, 성구매 경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t-test 하였다. 성구매 경험과 성·성매매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4.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 결과

##### 성구매 경험에 따른 관련 변인들 비교

성구매 경험에 따라 구분된 구매·비구매 집단 간의 특성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부부나 애인 사이의 관계·성관계 만족도를 포함하여 유사성교에 대한 불법성인지여부, 향후 성구매 의향과 성지식 습득 경로를 조사하였다.

먼저, 부부(애인)사이 만족도와 성관계 만족도, 향후 성구매 의향이 성구매 경험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표 2). 부부(애인)사이 성관계 만족도만 성구매 집단의 평균이 비구매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3.82, p < .01$ ). 성구매 경험에 따라 향후 성구매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1)부터 ‘기회만 되면 하겠다’(5)에 응답한 비율이 달리 나타났는데, 비구매자 집단의 43.9%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에 응답하였으며, 구매집단은 13.1%만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에 응답하였다. 이를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성구매와 비구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 12.41, p < .001$ ).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가 처벌대상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전체 응답자의 47.4%가 ‘예’라고 응답하였으

표 2. 성구매 경험에 따른 부부(애인)사이 관계와 성관계 만족도, 성구매 의향 평균(표준편차)

항목	구매	비구매	전체	t
부부(애인)사이 관계 만족도	4.36(1.24)	4.48(1.36)	4.43(1.31)	-1.52(ns)
부부(애인사이) 성관계 만족도	4.18(1.38)	4.51(1.43)	4.36(1.41)	-3.82**
향후 성구매 의향	2.62(1.04)	1.91(.99)	2.20(1.07)	12.41***

\*\*  $p < .01$ 

표 3 유사성교의 불법성 인지여부

집단 구분	인지함 (예)	인지못함 (아니오)	계	$\chi^2$
구매	274(51.0)	263(49.0)	537(100.0)	
비구매	340(44.9)	417(55.1)	757(100.0)	4.703*
전체	614(47.4)	680(52.6)	1294(100.0)	

\*  $p < .05$ 

표 4. 성지식의 습득 경로

집단 구분	책	대중매체	성교육	건강 문화 등 특강	주위 친구	인터넷	비디오나 영화	$\chi^2$
구매	77(15.3)	100(19.8)	44(8.8)	6(1.2)	<b>102(20.3)</b>	<b>111(22.1)</b>	54(10.8)	
비구매	60(8.4)	115(16.3)	<b>153(21.6)</b>	32(4.5)	101(14.3)	<b>181(25.6)</b>	57(8.1)	67.73***
전체	137(11.3)	<b>215(17.8)</b>	197(16.3)	38(3.1)	203(16.8)	<b>292(24.2)</b>	111(9.2)	

\*\*\*  $p < .001$ 

며, 구매집단의 인지비율이 비구매집단보다 높았다(51.0%: 44.9%).

성지식을 주로 습득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은 인터넷, 대중매체의 순이었으나 성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다. 성구매집단에 비해 비구매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다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22.1%: 25.6%), 성매매집단은 주위친구로부터 인 경우가 20.3%, 비구매집단은 성교육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21.6%였다. 특히 성교육을

통해 성지식을 습득했다는 응답이 성구매집단에서는 8.8%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의식과 태도 척도별 평균 비교와 요인분석

####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성매매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항들에 대해 성구매집단과 비구매 집단의 응답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매매의 범죄성( $t =$

-6.16,  $p < .001$ ), 성매매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t = -6.45, p < .001$ ), 가족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t = -3.66, p < .001$ )에 비구매집단이 더 많이 동의하였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 이므로 정당한 거래관계이다( $t = 9.28, p < .001$ )’, ‘성매매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t = 4.25, p$

$< .001$ )’,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 $t = 5.68, p < .001$ )’, ‘성매매는 남자의 성욕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t = 6.09, p < .001$ )’ 등에 성구매 집단이 비구매집단 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성구매와 비구매 집단 간에 응답 빈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 의해

표 5. 성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요인분석

	요인			
	1	2	3	4
성매매는 남자의 성욕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	.719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	.661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도 있다.	.644			
성매매는 돈을 주고받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거래 관계이다.	.589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553			
성매매는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801		
성매매는 범죄이다.		.800		
성매매는 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799		
성매매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매매를 그만 둘 수 있다.			.797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활을 위해 자신의 일을 즐긴다.				.701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병을 얻기 쉽다. 그러나 콘돔을 사용한다면 섹스를 해도 안전하다.				.471
성매매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453	
성매매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가 많다.				.773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에 의해 성을 팔도록 강요받는다.				.755
성매매 여성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				.661
Eigenvalue	4.01	2.06	1.26	1.01
설명변량(%)	16.50	15.07	12.25	11.55
누적설명변량(%)	16.50	31.56	43.81	55.36
Cronbach's $\alpha$	.625	.786	.634	.570

요인 1: 정당한 필요성, 요인 2: 범죄적 문제성, 요인 3: 안일함과 자발성, 요인 4: 피해자 인정

성을 팔도록 강요받는다( $t = 1.12$ , ns), ‘성매매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가 많다( $t = .69$ , ns)’이다. ‘성매매 여성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의 피해자이다’도 비구매집단이 더 동의하였으나( $t = -2.06$ ,  $p < .05$ ), 다른 문항들에 비해 평균차이는 크지 않았다.

성매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차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성매매 인식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주성분 분석을 통한 Varimax 회전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4 개였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55.36%를 설명하였다. 고유치가 높았던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매매의 정당성과 필요성, 범죄로 인정하는 문제성,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일함과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는 요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보는 것과 관련된 네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남성 중심적 고정관념이 높은 것이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하여 점수를 합한 후 평균을 내어 요인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성구매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제시된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남성적인 사고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여성에 대해 피해자로 보는 정도는 성구매 경험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 $t = .88$ , ns), 나머지 세 요인들의 평균은 성구매 경험 집단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은 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

표 6.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하위 요인별 차이검증:  
성구매경험에 따른 성매매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구매	비구매	전체	t
정당한 필요성	12.79 (3.83)	10.49 (3.44)	11.47 (3.78)	10.40***
범죄적 문제성	6.66 (2.06)	5.82 (2.19)	6.17 (2.17)	
안일함과 자발성	9.43 (2.29)	8.48 (2.31)	8.89 (2.35)	6.64***
피해자 인정	6.89 (1.75)	6.78 (1.83)	6.83 (1.80)	

\*\*\*  $p < .001$

의 성구매 경험은 성매매가 정당하며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t = 10.40$ ,  $p < .001$ ),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보거나( $t = 6.44$ ,  $p < .001$ ) 보건위생 상 안전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인식( $t = 6.64$ ,  $p < .001$ )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행동에 대한 허용성

성구매자와 비구매자를 포함한 남성 응답자들의 성행동의 개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질문하여 허용도를 측정하였다. 성구매와 비구매집단 간의 응답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들은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 $t = 7.55$ ,  $p < .001$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애무까지는 해도 괜찮다( $t = 4.10$ ,  $p < .001$ )’, ‘혼전 성관계는 해서는 안된다( $t = -3.43$ ,  $p < .05$ )’, ‘외도는 해서는 안된다( $t = -5.10$ ,  $p < .001$ )’, ‘성매매는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t = -4.52$ ,  $p < .001$ )’,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에대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 $t = 2.17, p < .05$ )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장들 중에 성행동 허용도를 구성하는 주요차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성행동 허용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적자유와 관련되는 개인적 성행동, 혼전 성관계 허용, 사회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외도나 청소년, 성매매 등을 허용적으로 보는 세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표 7에 제시되었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성개방이나 허용적 사고가 높은 것이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하여 점수를 합한 후 평균을 내어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주성분분석을 통한 Varimax 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3개였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66.18%를 설명하였다. 고유치가 높았던 3개

요인을 살펴보면 제1 요인: 개인적 성행동, 제2 요인: 혼전성관계, 제3 요인: 사회적 영역이었다.

성행동 허용에 대한 인식이 성구매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제시된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 허용에 대한 관대한 사고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행동의 허용도( $t = 5.19, p < .001$ )와 사회적 영역에서의 허용도( $t = 6.20, p < .001$ )는 성구매 경험 집단의 평균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개인적 영역의 성행동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성구매 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관대한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행동허용도 요인분석

문항	요인		
	개인적 성행동	혼전성관계	사회적 영역
사랑이 없어도 성관계는 가질 수 있다.	.814		
서로 마음만 맞으면 애무까지는 해도 괜찮다.	.789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도 괜찮다.	.728		
혼전 성관계는 해서는 안 된다.		.904	
혼전 성관계는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무너뜨린다.		.900	
외도(혼외 성관계)는 해서는 안 된다.			.822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678
성매매는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598
Eigenvalue	3.19	1.95	1.36
설명변량(%)	25.52	21.15	19.51
누적설명변량(%)	25.52	26.67	66.18
Cronbach's $\alpha$	.71	.80	.54

표 8. 성행동허용도에 관한 하위 요인별 차이검증: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허용도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구매	비구매	전체	t
개인적	10.00	9.25	9.55	5.19***
성행동	(2.44)	(2.53)	(2.52)	
혼전성	6.60	6.25	6.39	2.80
관계	(2.20)	(2.14)	(2.17)	
사회적	7.50	6.67	7.00	6.20***
성행동	(2.33)	(2.32)	(2.36)	

\*\*\*  $p < .001$

###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성역할 평등의식)

성역할평등의식과 관련된 문항들이나 높은 점수는 전통적 성역할에 많이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구매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구매/비구매) 간에 남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구매 집단이 비구매 집단에 비해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들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경험에 따라 남녀에 대한 평등의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표 9. 성역할 평등의식 요인분석

	요인	
	1	2
여자가 개인경력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665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663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627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624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지 않다는 여자는 문제가 있다.	.617	
남자가 술 취한 모습보다 여자가 술 취한 모습이 더 보기 안 좋다.	.616	
여자는 결혼할 때 처녀여야 한다.	.602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508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아야 남자답다.	.814	
남을 지배하고 싸움을 잘 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797	
남자는 성적으로 강해야 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762	
남자의 외도는 곧 능력이다.	.705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560	
Eigenvalue	6.40	2.08
설명변량(%)	25.67	22.91
누적설명변량(%)	25.67	48.58
Cronbach's α	.799	.812

요인1: 전통적인 여성상, 요인2: 전통적인 남성상

표 10. 성역할평등의식에 관한 하위 요인별 차이검증  
: 성구매 경험에 따른 성역할평등의식 요인의 평균(SD)

	성구매	비구매	전체	t
성평등 요인1	25.24	23.50	24.20	
전통적인				5.0***
여성상	(5.88)	(6.07)	(6.06)	
성평등 요인2	12.31	11.52	11.85	
전통적인				3.2*
남성상	(4.41)	(4.21)	(4.31)	

\*  $p < .05$ , \*\*\*  $p < .001$

지 집단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남자는 성적으로 강해야 하고 성관계를 주도해야 한다( $t = 3.92, p < .05$ ),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아야 남자답다( $t = 3.89, p < .05$ ). 남자의

외도는 곧 능력이다( $t = 7.67, p < .01$ ),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t = 6.95, p < .05$ ),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t = 14.79, p < .001$ ),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지 않다는 여자는 문제가 있다( $t = 4.08, p < .05$ )” 등의 문항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외도가 능력이라고 보면서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에 대해 가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극도의 차별화된 성역할 의식의 반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역할 평등의식과 관련된 인식들을 구성하는 주요차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문항들을 요인분석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은 남성 중심적 고정관

표 11. 성매매 경험과 성매매·성허용도·성역할평등의식 하위요인들과의 상관분석

	1 성구매	2 구매의향	3 성매매1	4 성매매2	5 성매매3	6 성매매4	7 성허용1	8 성허용2	9 성허용3	10 성평등1
2	.324***									
3	.329***	.416***								
4	.201***	.349***	.343***							
5	.220***	.350***	.525***	.328***						
6	.022	.118***	.045	.326***	.118***					
7	.152***	.330***	.379***	.172***	.228***	.012				
8	.069*	.146***	.027	.199***	-.065*	.157***	.197***			
9	.177***	.300***	.249***	.444***	.262***	.336***	.133***	.336***		
10	.148***	.149***	.267***	.025	.293***	-.068*	.082*	-.308***	-.090*	
11	.101***	.203***	.369***	.101***	.375***	-.036	.217***	-.111***	.099***	.530***

주. 1. 성구매경험(1무 2유), 2.향후 성구매의향, 3. 성매매-정당성,4 성매매-법적문제성, 5. 성매매-안일함과 자발성, 6. 성매매-피해자인정, 7. 성허용-개인적행동, 8. 성허용-흔전성관계, 9. 성허용-사회적영역, 10. 성평등-전통적여성상, 11. 성평등-전통적남성상.

\*  $p < .05$ , \*\*\*  $p < .001$

념이 높은 것이 높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하여 점수를 합한 후 평균을 내어 요인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주성분분석을 통한 Varimax 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2개였고, 이들은 전체 변량의 48.58%를 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가부장제하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동의, 전통적인 남성 상에 대한 동의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표에 제시되었다.

#### 성구매 경험과 성의식·태도 척도 하위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성구매 경험이 성매매나 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세 척도의 요인분석에서 나온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성구매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피해자인 정(성매매4) 요인을 제외한( $r = .022, p = .462$ )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향후 성구매를 할 상황에 놓인 경우 성구매를 하겠다는 의지는 또한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사고,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고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성역할 평등의식 척도에서는 성구매 경험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상에 동의하는 정도( $t = 5.00, p < .001$ )와 전통적인 남성상에 동의하는 정도( $t = 3.20, p < .05$ )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즉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이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의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조사 대상 남성 전체를 성구매 경험 유무에 따라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척도별로 비교하였다. 성매매관련법과 성매매 관련 지식이나 성향에 대해 조사하고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에 대한 허용도, 전통적인 성의식 척도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성구매 경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성 구매를 경험한 집단이 성매매 법률과 관련하여 유사성교가 처벌대상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비율, 향후 성구매 의향이 더 높고 부부나 애인간의 성관계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법성 여부를 인지하면서도 성구매 행위를 한다는 것을 법 제지력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부분이다. 전체 응답자들의 성지식의 습득 경로는 인터넷, 대중매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성구매집단은 주위친구로부터인 경우, 비구매집단은 성교육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성교육을 통해 성지식을 습득했다는 응답이 성구매집단에서는 비구매집단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성교육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성구매 경험자들이 성구매 무경험자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성매매에 대해 남성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성행동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성역할관련 평등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면에서는 하위척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실시된 세 가지 성의식과 관련된 척도들에서 먼저, 성매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차원이 무

엇인지 알아보고자 성매매와 관련된 인식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성매매의 정당성과 필요성, 범죄로 인정하는 문제성,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일함과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는 요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과 관련된 네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성매매여성에 대해 피해자로 보는 정도는 성구매 경험에 따라 다르지 않았으며, 나머지 세 요인들의 평균은 성구매 경험 집단이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은 구매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성매매와 관련하여 남성중심적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은 성매매가 정당성하며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보거나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인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평균비교에서도 성매매 여성의 상황이나 처지에 대한 이해 정도는 성구매 경험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이는 성구매 경험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실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도 거리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김현선, 2002)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동기에 상관없이 성매매 과정에서 여성들이 구타, 강간, 협박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성매매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요인의 점수가 성구매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성구매 경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남성모두가 가지는 편견이 관련된 것인지, 나타난 양상은 동일하지만 판단의 근거는 서로 다른 것인지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성구매자와 비구매자를 포함한 남성 응답자들의 성행동의 개방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을 질문하여 허용도를 측정하였다. 성구매 경험자들이 사랑 없는 성관계, 성매매, 외도(혼외관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성행동 허용도를 구성하는 주요차원은 성적자유와 관련되는 개인적 성행동, 혼전 성관계 허용, 사회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외도나 청소년, 성매매 등을 허용적으로 보는 세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성행동 허용에 대한 인식이 성구매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개인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행동의 허용도와 사회적 영역에서의 허용도는 성구매 경험 집단의 평균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개인적 영역의 성행동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성구매 경험이 없는 이들보다 관대한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태도가 성구매 경험에서 기인한 것인지 성에 대한 허용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지닌 이들이 성구매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성역할 평등 의식과 관련된 인식들을 구성하는 주요차원은 가부장제하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동의, 전통적인 남성상에 대한 동의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성구매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구매/비구매) 간에 ‘남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각 보기에 응답한 빈도들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구매 집단이 비구매 집단에 비해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가치들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외도가 능력이라고 보면서 여자가 개인경력을 쓰는 것에 대해 가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극도의 차별화된 성역할 의식의 반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구매 경험에 따라 전통적인 여성상에 동의하는 정도와 전통적인 남성상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으며, 이는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들이 비구매 남성들보다 남녀의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상수와 김금미의 연구(2008)에서 남성들이 ‘성매매종합대책 실시’에 대해서는 성평등의식 고저에 따른 차이 없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남성들의 낮은 성평등의식이 공정성 문제제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밝혔다. 즉 성평등의식이 낮고 양성평등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남성들일수록 여성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의식들이 성구매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추후 연구에서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성매매에 대한 인식전환 운동의 전개를 위한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성구매 경험이 성매매나 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본 상관분석 결과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피해자인정(성매매4) 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구매를 할 상황에 놓인 경우 다시 성구매를 하겠다는 의지,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사고, 성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사고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성 고정관념 속에서 남성들이 성장하고 교육받아온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론하게 한다.

성에 대한 남성중심적 고정관념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들이 많아 교정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으나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것으로 우리사회에 잔존하는 성에 따른 역할 분리의 일상 규범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일시에 변화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 특성 발달에 대한 연구(변명숙, 성옥련, 2000)에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자신의 성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그 이유는 여아들이 미래에 자신이 갖게 될 사회적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각하여 기대를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고정관념 활성화가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방희정과 조혜자(2004)는 남성들은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있으며, ‘남성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처방을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자아에 수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Eagly(1987)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이 성격적 특질이라기보다 남녀의 역할과 관련된 특징이라는 주장과 Fiske(1998)의 남성 고정관념적 역할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연계되므로 자아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간다는 주장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향후 남성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탐색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19세 이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성구매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4년을 넘기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전환을 점검하고 향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먼저 성의식 조사라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에 일조하고 그 현황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이나 태도,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함으로써, 성매매에 대한 연구 영역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성매매에 대한 문화적 요인 연구의 영역에 자료를 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매매의 일상성에 대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성매매 의식조사라는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의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와 관련된 많지 않은 선행연구들이 피해여성들의 실태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화두를 제기하려는 시도들로 행해져 왔다(김현선, 2002b; 막달레나의집, 2002). 그 외에 전국 각지의 여성연합에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앞당기고자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김현선, 2002a)에 대해 연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식 토론회(전북여성단체연합, 2002)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한국여성단체연합, 2001)를 개최

하였다. 2003년에 전국여성연합에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현황과 과제’라는 이름으로 실시 한 전국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정진경, 양계민, 2003)에서도 다양한 인구사회 학적 변인 별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나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지는 않았다. 성구매 경험정도를 연령, 결혼여부, 성매매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조사 실시 지역별로 어떠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성매매행동이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성평등의식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구매자가 될 수 있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성매매의 폐해나 문제점을 피해여성의 상황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제한점을 추후연구 방향과 연결 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경기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지역이 다른 지역들과 특별히 다른 특성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지역만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들이 축적되어 전국적인 상황이 통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나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측면에 비중을 두어 성구매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성구매 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태도나 행위의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 행동들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

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구매 남성들의 행태를 조사한 영국의 연구(Coy, Horvath,, & Kelly, 2007)는 특정한 법의 제정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공공의 태도를 바꿀 수 있으나 법적인 제재조치가 개인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에 대한 통제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성구매와 관련된 행위자들에 대한 분석은 성매매 행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요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연구에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의 성매매에 인식 조사도 함께 병행된다면, 성매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일부는 대면상황에서 설문 조사로 실시되어 조사원을 의식한 응답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여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솔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다 심충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드러났으며, 추후 연구에서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도 나왔다. 부인이나 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불만인 경우가 성구매 경험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구매가 구매남성들의 성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적인 문제의 원인은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면 모든 측면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사는 일반적인 양상 속에서 부부나 애인과의 성관계에도 왜곡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기혼 남성들의 성구매 행위에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혼자의 성구매 행위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차원에서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연구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오래된 시각, 즉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내에서의 필요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로 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성구매의 행위자인 남성들의 성구매 경험에 따른 의식차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 내에서 성구매 행위의 위법성과 해악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함을 확인시켰으며, 이는 보다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해수 (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53-82.
- 김명환, 안혁근 (2006).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따른 정책변화: 성매매 특별법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회보*, 40(4), 469-490.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사용설명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50-4.
- 김은경 (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원*.
- 김은경 (2006).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효과성 분석. *형사정책*, 16(2), 149-179.
-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연구. *성공회대학*

- 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원, 임희정 (2000).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29-45.
- 박경래 (2008). 인터넷 성매매 실태 및 정책함의 고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 차단을 위한 포럼 자료집. 다시 함께 센터
- 박 경 (2006). 여대생의 성피해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귀인양식과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3), 327-344.
- 방희정, 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83-106.
- 변명숙, 성옥련 (2000).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특성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1), 61-71.
- 막달레나의 집 (2002).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도서출판 삼인.
- 민가영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변혜정 엮음.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도서출판 동녘.
- 한채윤 (2006). 벽장비우기. 변혜정 엮음.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도서출판 동녘.
- 안상수, 김금미 (2008).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적극적 조치, 공정성 지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99-324.
- 이은진, 이수정 (2008). 경기도민 성매매 의식 실태조사. 성매매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집. 수원여성의전화부설 어깨동무.
- 이주용, 김정규 (2006). 성피해의 심리적 후유증에 관한 연구- 성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99-324.
- 정진경, 양계민 (2003). 성매매 의식변화를 위한 대안과 실천.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 조 국 (2003).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도서출판 사람생각.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4). 우리여성의 역사. 도서출판 청년사.
- 한국여성연구소 (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출판사.
- Barry, K. (1979). *Female Sexual Slavery*, Prentice-Hall.
- Coy, M., Horvath, M., & Kelly, L. (2007). *It's just like going to the supermarket: Men buying sex in East London*.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Child and Woman Abuse Studies Unit.
- DiLillo, D. & Long, P. J. (1999). Perception of couple functioning among fe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7(1), 59-76.
- Eagly, A.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Farley, M. & Baral, I. (1998).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
- Fiske, S. (1998).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357-411). NY: McGraw-Hill
- Giddens, A. (1992). *Transformation for Intimacy-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 Kendall-Tackett, K. A., Williams, L. M., &

- Finkelhor, D. (1993). Impact of sexual abuse on children: A Review and synthesis of recent empiric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13, 164-180.
- Kersten, J. (1996). Culture, Masculinities and Violenc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6(3), 381-395.
- Rusell, D. E., & Bolen, R. M. (2000). *The epidemic of rape and child sexual abuse in the United States*. Thousand oaks, CA: Sage.
- Wortley, S., Fischer, B., & Webster, C. (2002). Vice Lessons: A survey of prostitution offenders enrolled in the Toronto John School Program.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44.

논문투고일 : 2009. 05. 02

1차 심사일 : 2009. 05. 12

게재확정일 : 2009. 08. 11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Men's Thinking and attitudes  
on Prostitution and Gender:  
Based on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Eunjin Lee**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men's thinking and attitude on prostitution and gender based on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It was an exploratory survey for planning future studies and movements for changing a way of thinking in relation to prostitution. A total of 1328 male adults(above 19 year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thinking of buying sex, tolerance limit of sexual behavior, and sex role egalitarianism. The respondents answered differently in the probability of paying for sex in future and the way how to get a sex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Those respondents who had paid for sex, had higher scores on three types of sex attitude measures than those who did not. The previous experience of buying sex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b-factors of buying sex, tolerance limit of sexual behavior, and sex role egalitarianism except for the sub-factor on recognizing a sex worker as a victim (factor 4 of buying sex). These results suggest that men who had paid for sex had more traditional gender-stereotypes and attitude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a feminist perspective.

*Key words : prostitution, buying sex, gender-stereotype, tolerance limit of sexual behavior, sex role egalitarianism, feminist perspective.*